

제15장 환원 사상(1)

강명석 선교사는 1936년 12월 6일(주)부터 조선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 전도자(evangelist, 순회 전도자)로 사역하면서 환원 사상(reductionism)이 담긴 글들을 주로 주간 『기독신보』와 『청년』 잡지에 게재하였다. 먼저 자신의 가짜 목사 시절을 고백하면서 진실한 전도자가 되기를 늘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며 작성한 「假(가, 가짜)先知者(선지자)」(1회)와 전도자의 사명에 대한 견해가 담긴 「基督軍(기독교 군, 그리스도의 군사)」(1회)이다. 다음으로 원형교회(primitive church) 회복을 위한 글인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1회)와 「歷史上(역사상)으로 본 基督教會(기독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正體(정체)」(1회)이다.

또한, 진정한 교회 일치(church congruence, church unity)를 다룬 논문인 「國際宣敎大會(국제선교대회)를 앞두고」(1회)이다. 그리고 성서권위(Bible authority) 회복을 위한 글인 「가장 좋은 메세이지(메시지)」(1회)와 미국 교파형 교회(denomination church) 목사들과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들의 신앙을 비교하며 작성한 「米國(미국) 牧師(목사)들의 信仰觀(신앙관)」(1회)이다. 이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명석 선교사의 ‘환원 사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교회관’(教會觀)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힘으로 출현(出現)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강명석 선교사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기원후(紀元後, A. D.) 33년 오순절(Pentecost)에 사도 베드로(Peter the Apostle)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사도행전 2:14~36)라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전하자 3,000명이 침례(浸禮)를 받으므로 지구상에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를 말한다(사도행전 2:37~47). 그리고 그 교회는 어머니 교회(mother church)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Jerusalem Church of Christ)이며 모든 교회의 정체(正體) 즉 원형(原形)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현을 위하여 예수께서 자신의 그 귀하신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후에 교회는 예수가 흘리신 그 피의 힘으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흘리신 그 귀하신 피에 대하여 설

명할 때 교회는 비로소 나타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도한 결과 몇천 명의 신자가 생기어 그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였다.” [「역사상으로 본 기독교회의 정체」, 10.]



둘째,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므로 설립(設立)된 교회의 정체인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자(創立者)는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의 장로(elder), 감리교회(Methodist Church)의 감독(bishop),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의 신부(priest)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복음 16:18)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대

한 모든 권세(權勢)는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 누구도 교회를 없애거나 고쳐서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는 비로소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절대적(絶對的)인 권세(權勢)도 예수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므로 예수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를 폐지(廢止)하거나 조직이나 구조 따위를 고쳐서 다시 만들 권리가 없는 것이다.” [『역사상으로 본 기독교회의 정체』, 10.]

셋째, ‘초대교회(初代敎會, 원시교회)로 돌아가자’ 즉 ‘교회의 정체가 되는 원형의 교회인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 교회의 정체가 되는 원형의 교회인 기독교회에 대하여 막연(漠然)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사도시대’(기원후 33.~98.)로 국한(局限)하였으며 ‘사도시대(apostolic age)로 돌아가서 기독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교회 중에서 진정한 그

리스도의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도 제시(提示)하였다.

“역사상으로 본 그리스도의 교회(基督敎會)의 정체는 사도 시대에서 볼 수가 있다. 오순절 때에 베드로의 선교 활동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교회, 그 후에 사도들과 신자들의 선교 활동으로 안디옥(Antioch)에 세워진 그 교회, 사도 바울(Paul the Apostle)과 또 다른 전도인(傳道人)들의 선교 활동으로 아시아(Asia)와 유럽(Europe)에 세워진 그 교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들이다. 현재 각국에 전파(傳播)되어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검토(檢討)하여 보면 수백 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어느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도시대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를 찾아야 할 것이다.” [「역사상으로 본 기독교회의 정체」, 10.]

넷째, 교회의 정체를 사도 시대의 교회라고 주장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의 진정한 정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에베소서 1:23)’이라는 말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여럿이 아닌 ‘영원히 하나(에베소서 4:4)’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는 교파 분열(分列)을 반대하는 견해이며,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뿐이라는 선언(宣言)이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치(一致)하기 위해서는 사도시대 이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교파 또는 교파의 신학을 깨뜨리거나 혹은 초월(超越)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골로새서 1:18).’라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야 할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제외(除外)한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지우지(左之右之)되는 몸이다. 이렇게 순수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한 일일 줄 안다.” [「그리스도의 교회」, 7.]

다섯째, 그리스도께서 ‘교파형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명칭(名稱)에 교파(敎派)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 명칭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교파형 교회들의 교회관은, 원론적(原論的)으로는 강명석 선교사의 견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명칭에 있어서는 교파형 교회가 강명석이 반대(反對)하고 있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강명석 선교사는 성서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은 세 가지라고 한다.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고린도전서 11:16; 디모데전서 3:15)’이다. 다음으로는 ‘내(나의) 교회(마태복음 16:18)’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마서 16:16)’이다. 그러므로 어느 명칭을 사용해도 성서적(聖書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로마서 16:16)라고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마태복음 16:18).’라고 하였다. 그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싶은 점은 ‘내 교회’라는 말이다. ‘내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인칭(一人稱)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 교회’라는 말의 삼인칭(三人稱)이다. 그러므로 ‘내 교회’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은 비록 글씨는 다르지만 같은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6.]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사도행전 20:28).’ 그러므로 그 교회는 그리

리를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귀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어 옛날 사도들이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명칭(名稱)을 그 명칭에 대신하거나 다른 명칭에 그 명칭을 형용사(形容詞) 격으로 첨부하는 일들은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 6.]

강명석 선교사의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피가 기초가 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뿐이라는 선언이다. 이 주장은 교회란 ‘그 아들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에 의해 획득된 죄를 용서받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였다는 사상이므로 타당한 주장임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렇게 강명석 선교사는 왜?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信念)이 매우 강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여러 가지로 설명하며 납득(納得) 시키는 설득력(說得力)도 남달랐다. 그러기에 Christian Church 그룹의 성낙소[成樂紹, 1890.~1964.] 목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기독교의 교회(필자 주, 基督敎會의 오기, Christian Church, 그리스도인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교회) 신학을 졸업한 자는 5인이다.... 나는 당시에 강명석 형제와 긴밀히 교제하였다. 이 형제는.... 감리교.... 목사로 수년간 교역하다가 미국 감리교 고등 신학을 수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신약시대의 교회와 현대 교회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교회(필자 주, Church of Christ 그룹) 신학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을 전하는 형제이다.... 강명석 형제를 청하여 집회를 하였다.... 선교사들과 우리가 회합하여 조선에도 교회 명칭을 성서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마태복음 16:18; 로마서 16:16)로 하기로 택정(선정)하였다.... 성서 그대로 신약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기로 내·외국인이 일치 결정하였다....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씨와 같이 변질하지 않고 환원 운동을 계승(繼承)하기로 한 것이다. [『基督의 敎會와 성낙소(成樂紹)와의 관계』, 2007, 132~133.]

위와 같이 강명석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그의 메시지는 호소력(呼訴力)이 있었으며 설득력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기독교회(Christian Church)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Church of Christ), 기독교회 교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로 회복시킨 이 집회는 강명석 생애의 마지막 집회와 토론을 통한 환원 운동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집회는 강명석이 1940년 앓아눕기 이전으로 여겨지는데, 성낙소 목사가 1940년 3월 25일(월) 기독교회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강명석의 마지막 교회 개척은 그해 6월이기 때문이다.